

기관지결핵 및 협착의 외과적 치료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흉부외과학교실

문석환·권종범·나석주·조건현·곽문섭·김세화

기관지결핵은 폐결핵 감염후 첫 2~3개월 후 동반되어 폐결핵의 10~40%를 차지하며 90%이상에서 다양한 정도의 기관지협착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기관지결핵의 임상양상이 단순흉부촬영상 폐종양과 유사하며 기관지 내시경 소견에서 육아조직 증식을 보이는 경우에는 종양과 흡사하여 감별을 요하기도 한다. 또한 기관지결핵에 의한 기관지협착, 또는 폐쇄된 정도가 완만하여, 협착하부의 폐실질의 점진적인 손상이 진행되어 진단이 확진되었을 때는 비가역적인 폐실질의 손상으로 폐절제술의 대상이 되어 왔다. 그러나 본교실에서는 91년 9월이후로 결핵성 기관지협착 환자에서 기관지성형술로 폐보존적 절제술을 시행한 이래 96년 9월까지 11례의 수술치험을 하여 양호한 임상결과를 경험하였기에, 최근 5년간 의무기록과 방사선검사 소견을 토대로 기관지결핵의 임상양상과 치료, 예후에 대하여 분석하였습니다.

총 43례로 결핵균 양성병력을 가진경우가 19례에 불과하였고, 그의 조직검사나 과거 결핵치료 병력에 의존하였다. 환자의 연령 분포는 9개월부터 77세까지 다양하며 평균연령은 34.5세이었다. 남녀 성비는 남자 8례, 여자 35례로 여자에서 월등히 많았다. 병변의 위치는 기관 1례, 좌주기관지 16례, 좌상엽기관지 및 주기관지가 3례, 좌주기관지 및 좌하엽기관지가 1례, 좌상엽기관지가 1례로 좌폐가 22례이었다. 우폐에서는 우주기관지 4례, 우상엽기관지 및 우주기관지가 3례, 우상엽기관지가 2례, 우중엽기관지가 5례, 우하엽기관지가 6례로 20례로 좌우 비슷한 발생빈도를 보이거나, 좌주기관지의 주변병변이 20례로 호발하였다. 환자의 주요증상은 지속적인 기침이 27례, 흉통이 14례, 운동성호흡곤란이 24례로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그의 발열, 객혈, 경부임파선염, 천식증세를 호소하였다. 폐결핵으로 계속치료하던 환자 30명에서 확진되기까지 평균 8.5개월이 소요되었고 이중 13례는 결핵 완치판정후 2년에서 23년후에(평균 10.5년) 기관지협착을 보였다. 치료에 있어서는 내과적치료가 22례, 수술 외과적치료가 21례이었는데, 폐엽절제가 6례, 침포기관지확장성형술이 4례, 폐엽절제와 병행한 기관지침포성형술이 2례, 주기관지수상절제가 1례, 폐엽수상절제가 3례이었던, 폐전적출술도 4례가 있었다. 중재적 치료를 한 예가 6례이었는데, 풍선확장이 4례, 스텐트삽입이 2례이었는데, 스텐트삽입례는 각각 2개월, 2년후 육아조직에 의한 기관지 재협착으로 기관지성형술을 하였다. 수술 사망은 없었다.

결론적으로 저자들은 기관지결핵 또는 기관지협착은 결핵 치료경과 중에 생기나 늦게는 23년후 생긴 예를 경험하였다. 또한 기관지 결핵, 협착의 진단은 기관지내시경, 또는 흉부 전산화단층촬영술이 유용하며, 지속적인 기침이나 진행성 호흡곤란, 진행성 폐허탈 등을 보이는 경우 기관지내시경이 확진을 위해 권장되며 치료지침이 된다.